

권력화한 문단에 던지는 자기성찰의 비평

《비평과 권력》 펴낸 권성우 교수

권성우 교수의 이번 비평집은 ‘매혹’이 아닌 ‘비판’으로 채워져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주류문학권의 폐쇄적 태도와 파벌주의를 비판하는 한편 비판적 글쓰기 진영의 한계도 지적한다. 주류문학권에 대해 그는 ‘자기 갱신’과 ‘자기 성찰’을 요구하고, 비판적 글쓰기에 대해서는 ‘상호 대화’를 통해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성우 교수(39, 덕성여대 인문학부)가 펴낸 《비평과 권력》(소명출판)은 그동안 그가 문학권력 논쟁과 비판적 글쓰기에 대해 발표한 글을 묶은 비평집이다. 그의 표현을 빌자면 이번 비평집은 문학에 대한 ‘매혹’이 아닌 ‘비판’으로 채워져 있다.

그가 이런 ‘비판’의 비평을 해온 것은 3년 전부터다. 《리뷰》(1998년 여름호)에 〈비평과 권력〉을 발표하면서 그는 문단의 권력과 파벌주의를 비평의 도마 위에 올렸다. 그 뒤 〈비판, 추억, 그리고 김현〉(《문예중앙》 2000년 가을호)을 통해 《문학과사회》(2000년 여름호)에 실린 권오룡과 김태환의 글을 문제삼으면서 본격적인 문학권력 비판에 불씨를 당겼다. 그는 이 글에서 권오룡의 글이 일반론과 익명성을 가장해 “타자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반대화적인 비판”이라 규정하고, 냉소로 일관하는 《문학과사회》측의 논쟁 회피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주류문학권의 근원적 자기갱신 필요해

“1990년대 비평은 작품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비평가들이 그들이 속한 문학 적 에콜의 눈치를 보느라 태작과 좋은 작품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주류출판사를 등에 업은 문학 에콜들에서 비평이 활발했지만, 정작 객관적인 공론은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객관성이 사라져버린 비평의 예로 극단적 편차를 보이던, 유미리와 신경숙의 작품에 대

한 평가를 든다. 유미리와 신경숙을 다룬 많은 비평가들이 의미 있는 다양성의 스펙트럼을 보여주기보다는 작품을 지나치게 해석하거나 잘못 읽은 글들이 많았다는 게 그의 지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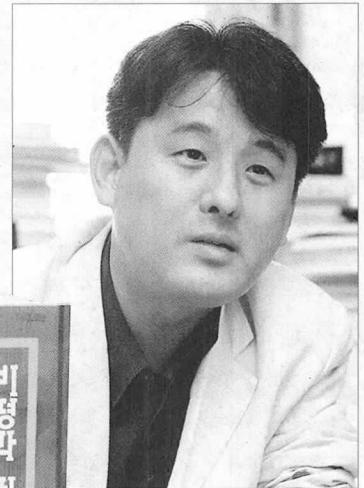
다. ‘문학과지성’ 동인을 주로 비판해온 것은, 비평계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에콜에 비해 비교적 열린 집단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권교수는 비평적 글쓰기가 숙명적으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기에 그가 문제 삼는 것은 권력 그 자체가 아니라, 권력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행사되고 있는가. 그가 주류문학권에 요구하는 것은 “제대로 된 부정과 비판” “치열한 전복적 상상력”과 그것을 통한 “근원적인 자기갱신과 자기성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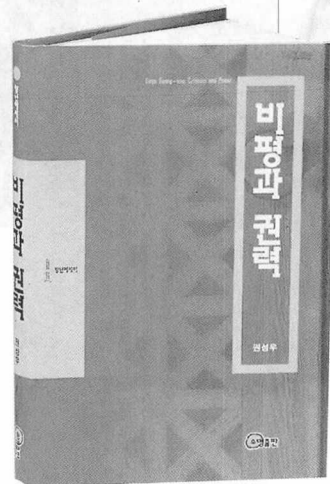
‘상호대화’로 비판적 글쓰기 분화해야

한편 그는 이 책에서 주류 문학의 권력과 파벌주의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주류 권력에 대항하는 이른바 ‘비판적 글쓰기’를 수행하는 논자들에게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는다. 권교수는 우선, 비판적 글쓰기는 새로운 문화적 흐름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스스로에게도 많은 반성과 성찰의 계기가 됐다고 말한다. 그러나 비판적 글쓰기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입장은 애정을 갖고 그들의 글쓰기의 한계를 지적하자는 것이다.

권교수는 최근 강준만의 ‘문학비평’을 언급하



권성우 교수



소명출판/A5변형/252면/8000원

면서, 김정란에 대해 쓴 강준만의 글이 칭찬 일변도였다는 것을 문제 삼는다. 그 글이

‘안티조선’이라는 연대에 훼손을 가하지 않기 위한 “전략적 글쓰기”였음을 인정하면서도, 비판적 글쓰기를 실행하는 논자들 사이에 ‘상호대화’를 통해 다양하게 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다양한 분화를 통해서만 비판적 글쓰기는, 단지 하나의 문학적 유행이 아니라 비판적 지성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한쪽에서는, 주류문학 에콜과 비판적 글쓰기 진영 양쪽 모두에 비판을 가하는 권교수의 이런 태도에 대해 양비론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오히려 저처럼 한발 물러서 있는 게 좀더 객관적이고 고요한 비판과 성찰을 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무척 고독한 위치인 셈이죠.”

비판적 글쓰기가 오히려 지나친 열광의 양극적 입장차를 넘어 서로에게 성찰의 계기가 되는 것이 권교수의 바람이다. 비판적 글쓰기에 쏟아지는 많은 냉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치열하고 정교한 비판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한다.

그는 요즘 문학과지성이 아닌 다른 문학 에콜에 대한 ‘비판’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상대적으로 가려져 왔던 ‘매혹’의 비평집도 준비중이라고 한다. - 김장근 기자